



# 향후 8개월간 돼지콜레라

## 박멸사업 마무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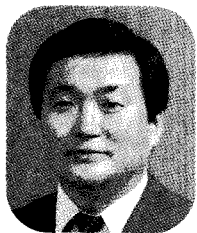
### 1. 지난 한해의 평가

지난 '99년도는 연초부터 돼지콜레라를 박멸해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한목 소리가 어느때보다도 높았었고, 예방접종을 100% 실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농장 방역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해가 되었다.

우리 양돈산업계의 최대현안인 돼지콜레라를 조기근절하는데 힘을 모으기 위하여 농·축협,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 수의업계, 양돈·종돈업계, 육가공

관련업계와 전문지 등 분야별 22개 단체가 지난해 4월 15일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를 창립하였고, 새로운 민간방역단체로서의 활동을 개시한 것도 지난해의 중요한 변화였다고 본다.

창립 이후부터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대책본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99년 8월 이후부터 각 시·군방역단 별로 관내 농가별 방역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예방접종 확인을 위해 10,053농가에서 91,348두를 채혈하여 검사기관에 검



최 홍 렬 사무국장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표1> 도별 돼지콜레라방역단 활동실적 ('99년12월말 누계)

구 분	실태조사			채 혈		검사의뢰		접종지원	
	농가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경 기	3,249	2,641	25,588	2,579	24,489	523	59,250		
강 원	496	279	2,417	266	2,202	119	2,954		
충 북	818	651	5,511	374	4,039	210	7,820		
충 남	4,309	1,597	16,994	1,593	16,895	1,324	168,516		
전 북	2,981	1,251	10,968	1,243	10,910	913	51,686		
전 남	6,503	860	6,973	847	6,855	930	86,188		
경 북	3,198	1,472	11,521	1,465	11,490	130	3,359		
경 남	6,239	1,302	11,376	1,034	10,955	1,653	79,714		
계	27,793	10,053	91,348	9,401	87,835	5,802	459,487		

## ● 특집/돼지콜레라 박멸, 최종점검 8개월!

정부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일정이 정해지겠지만,  
대책본부에서는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예방접종 100% 실시 및 비발생 유지에 목표를 두고  
예방접종 중단에 대비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검사두수기준 항체양성률이 94.4%로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방역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 결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방역단 활동실적 : 표1 참조>

그동안 충분치 못한 지원임에도 전국의 110개 시·군방역단과 방역요원 114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각 농가를 찾아다니며 채혈하고 예방접종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민간방역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해였다고 본다.

무엇이든 새로운 출발이란 너무 어려움이 많은 법이다.

더구나 대책본부가 한시적 조직이고 안정적인 보장도 없는 실정임에도, 방역요원들이 땀새나는 돈사에 들어가 돼지 한마리 한마리를 채혈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지역 양돈업을 지켜가기 위한 사명감이 없으려는 방역단과 방역요원업무를 앞장서서 추진해 가기란 힘든

일이다. 각 지역별로 양돈농가의 업무협조와 격려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다시 한번 각 방역단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9월 말까지 모두 힘을 합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양돈관련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약 12억원의 기부금을 기탁해 주었기에 모두 큰 힘을 얻었고, 민간단체인 방역단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 것은 앞으로 역사적인 기점이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가 돼지콜레라를 조기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역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양돈농가가 힘을 합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돼지콜레라가 제1종 법정전염병이므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하며, 적극 참여할 의사도 없으면서 모든게 정부책임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물론 틀린 견해는 아니겠지만, 시간은 자꾸만 촉박해지는 시점에서 소득 없는 주장만 앞세우고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 2. 앞으로 8개월간의 추진계획

정부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일정이 정해지겠지만, 대책본부에서는 우선 오는 9월 말까지 예방접종 100% 실시 및 비발생 유지에 목표를 두고 예방접종 중단에 대비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역 방역단이 시·도 및 시·군과 협조하여 24천호 전농가에 대한 채혈검사 및 농가방역관리 실태점검을 연3회 실시하기 위해서 방역단 방역요원 활동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대책본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난해에는 교육·홍보비 27백만원과 채혈기자재 물품공급(83백만원 상당)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채혈검사 및 방역 실태조사 지원비 1,440백만원과 채혈기자재비 260백만원, 교육·홍보비 280백만원 등 모두 19억8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므로, 충분치는 못하지만 관련업계의 지원만 있으면 대책본



부의 방역단 운영지원은 계속할 수 있겠다고 본다. 대책본부가 금년에 추진해 나갈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농가채혈 및 방역관리 실태점검 사업

시·군 방역단별로 방역요원이 주기적으로 농가방역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점검하며, 소독관리, 접종적기, 돼지구입 경로 등을 지도하여 더 이상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각 방역단별로 방역요원이 중심이 되어 동물약품업체, 사료업체 등의 인력지원을 받아 매분기 1회씩 연3회에 걸쳐 전 농가별 채혈을 실시하여 시·도가축위생시험소에 혈청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예방접종 적기 지도, 방역홍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채혈 등으로 농가방문시에는 반드시 방역복 등을 착용하고

록 지원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예방접종도 실시토록 하여, 정부의 소규모사육농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방역요원이 접종팀 역할도 병행하도록 하였다.

시·군 방역단이 미설치된 지역은 지역축협이 전담토록 협조하고, 모든 양돈농가가 누락됨이 없도록 전농가를 채혈 검사토록 할 것이다.

### 나. 교육·홍보활동 강화

금년의 양돈농가 교육방향은 시·도단위 순회교육을 지양하고 양돈집중지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시·군 지역별로 방역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 단위 집합교육의 경우 참여농가가 적고 교육참석자가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시·군단위로 변경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지역별로 공동방역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고,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한 홍보는 정부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 다. 민간방역단체의 역할 확대

지난해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이 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련민간단체의 소속직원을 가축방역보조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방역보조원이 농장에 출입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거나 가축방역상황을 조사하는 등 민간방역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다.

또한 정부의 가축방역업무중 예방주사와 검사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경우 농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율방역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에서는 시·군방역단과 방역요원의 역할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시·군지역의 방역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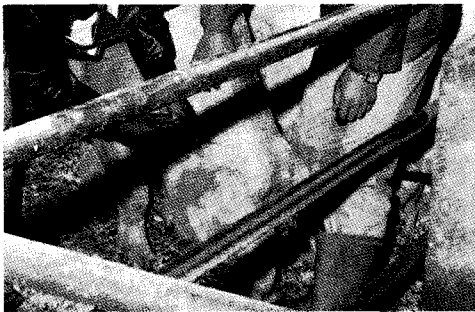
<표2> 시·도별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물량

(단위 : 두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300	1,800	1,800	7,800	600	300	1,200	43,900	10,80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8,400	57,300	42,200	56,100	26,400	41,100	-	300,000	



## ● 특집/돼지콜레라 박멸, 최종점검 8개월!



▲자돈의 예방접종은 반드시 40일령에 1차접종하고 60일령에 2차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농장주가 직접 확인·관리해야 한다.

### 3. 돼지콜레라 - 우리도 청정화 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6개월에 예방접종을 중단한데 이어, 올해 9월말까지는 전국에 예방접종 중단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10월초에는 청정화 선언을 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 예방접종 전면중단 시점이 7~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도 9월 말까지는 더 이상 발생이 없도록 100% 예방접종을 모든 농가가 빠짐없이 실시해야겠으며, 항체양성률이

95%정도이므로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도 제주도에 이어 예방접종 중단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일본이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9월 이후에 어

떠한 위생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국내 방역여건을 일본의 단계별 계획에 맞추어 대응함으로써 돼지고기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앞으로는 각 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돼지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양돈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인가 만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며, 방역관련기관과 민간단체와 농가가 힘을 합해간다면 청정화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각 농가가 꼭

지켜야 할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돼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는 농장인지, 예방접종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

**둘째,** 축사 내외부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제한하여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셋째,** 자돈의 예방접종은 반드시 40일령에 1차 접종하고, 60일령에 2차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농장주가 직접 확인·관리해야 한다.

**넷째,** 예방약은 냉장보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예방주사는 근육층에 정확히 접종해야 한다.

**다섯째,** 예방약은 가격덤프를 위주로 판매하는 회사의 값싼 제품보다는 믿을 수 있는 제조회사 제품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양돈농가마다 이런 몇가지만 꼭 준수해 준다면, 2000년도 후반기에는 우리가 힘을 합해 새로운 단계에서 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양돈**

